



## 사노피, 2012 국제비즈니스대상 CSR 아시아 부문 석권

- 올해의 아시아지역 CSR (한·중·일)부문에서 제약기업 최초로 수상
- 사노피 파스퇴르 금상,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은상 수상의 영예

**2012 년 8 월 27 일** - 사노피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2 곳의 사노피 그룹 계열사가 2012 국제비즈니스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의 ‘올해의 아시아지역 사회공헌활동 부문(CSR Program of the Year in Asia: China, Japan, and Korea)’에서 금상과 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노피의 수상은 아시아지역 사회공헌활동 부문에서 제약기업으로는 최초이다.

금상을 수상한 사노피 파스퇴르의 “헬핑핸즈(Helping Hands)” 캠페인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백신 접근성 및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작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사노피 파스퇴르는 헬핑핸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서울시와 독감 및 폐렴 등의 예방백신을 소외계층에 무상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 국내 최대 규모인 취약계층 5,0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실시한다.

은상을 수상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초록산타(Green Santa)”는 만성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의 심리치료 및 정서함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200여 명 이상의 환아들을 지원해왔다. 초록산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씨앗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아름다운가게’와 9년째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임직원들의 물품기증 및 바자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한 작년 말에는 아름다운가게 초록산타점(강남구청역점)을 기증하기도 했다. 초록산타는 ‘환자들의 정서적 지원’과 함께 ‘환경 보호’와 ‘임직원 및 지역 사회 참여’ 등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를 동시에 구현한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고 있다.

사노피 그룹 국내 계열사의 커뮤니케이션 및 기업사회공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선영 이사는 “올해의 아시아지역 사회공헌활동 부문에서 사노피가 금상과 은상을 모두 수상하게 되어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환우, 노숙인, 유기 동물과 같은 소외계층을 보듬는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을 심고 가꾸는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사노피는 지난 6월 자사의 계열사 4곳의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통합하는 CSR 브랜드 ‘희망씨앗’을 발족해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s)’로 불리는 국제비즈니스 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은 지난 2003년 제정 이후, 전 세계의 기업과 조직들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성장·홍보 등의 사업 활동 중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유일한 국제 대회다. 2012 국제비즈니스대상에는 50여개국에서 3천 2백여편의 프로그램이 출품돼 경합을 벌였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0월 15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다.

###

###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 (젠자임 코리아), 동물약품 (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다각화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